

多國籍企業의 글로벌 戰略要因이 시장進入模型 選擇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研究

김철연*

A Study on the Affect for the Choice of Entry Mode by A Global Strategy Factors of Multinational Companies

Abstract

Recently MNC's(multinational companies) worldwide have been expanding their own territories in the wake of acceleration and open-door policy of global competition. So, In this study, the main goal is conduct an empirical research for MNC's contingency factors and entry modes. Through examining elements of success and limitations of foreign companies in the domestic market, a resulting purpose can be suggested such as developing attractive foreign investment policy. The results in this study are as below.

keyword

다국적기업, 글로벌전략요인, 해외직접투자

I. 서론

세계경제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인 WTO의 출범으로 본격적인 글로벌경쟁체제로 전환이 되었고 장벽이 없는 글로벌 경쟁체제가 가속화 되어가면서 지속적인 개방 압력과 더불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중심으로 세계경제질서가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살생적 경쟁의 개방경쟁 물결 속에서 선진 다국적기업들은 자신들의 글로벌 전략차원에서 세계를 무대로 그들만의 비교우위를 이용한 사업영역을 더욱 확대시키고자 해외직접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또한 이들 기업을 받아들이는 수용국(Host Country)은 다국적기업의 유치확대

*안산/대학 겸임교수

및 안정적인 외환보유고를 통하여 대외 신인도를 제고시키며, 생산·고용의 확대를 통한 자국 GDP의 증가와 내수경기 확대 그리고 실업률 하락 등 국내경기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소득 증대와 수출 증대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 그리고 산업구조조정 등의 효과를 고양시키고자 다국적기업들의 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으로 투자유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기업 유치에 위해 2003년 12월 Invest KOREA를 출범시켜 집중적인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활동과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강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2004년 1/4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전년동기대비 175.2% 증가한 30.5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2002년 4/4분기 이후 지속됐던 외국인직접투자 감소세는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투자 산업에 있어 서비스업 비중은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감소하였다.

또한 투자유형별로도 Greenfield Investment 투자비중은 감소한 반면 M&A 투자비중은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다국적기업들의 국내진출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최근의 투자패턴은 세계시장 권역별 Headquarter를 중심으로 글로벌 전략 하에 세계경영을 전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에 대한 검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이 어떠한 글로벌전략 하에 어떠한 형태로 시장에 진입을 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증연구가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결정이나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전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해외직접투자이론의 고찰

Rugman(1986)은 해외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우선 위험수준이 낮고 자원투입이 많이 요구되지 않는 수출방식으로 해외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선호하고 높은 무역장벽 때문에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면, 기업은 비로써 라이선싱이나 해외직접투자 등의 다른 대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이 때 기업이 특히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기술의 유출위험인데, 만일 기술이 유출되어 경쟁우위를 잠식당할 가능성이 크지 않으면 라이선싱을 선택하게 되고, 기술의 유출위험이 높다면 상대적으로 자원투입이 많이 요구되는 해외직접투자를 감행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Root(1982)의 경우 해외시장 진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크게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외부요인으로는 첫째, 진출국의 시장요인으로 시장규모, 경쟁구조, 마케팅 하부구조 등을 들고 있으며 둘째, 진출 대상국의 생산비 관련요소로 생산요소 및 중간부품의 품질 및 수량, 운송, 통신, 항만시설 등 경제적 기반 시설을 들고 있다. 셋째, 진출 대상국의 환경요인으로 수입제한 정책, 투자유치 제한정책 등 정부의 정책과 규제, 그리고 마지막 본국 환경요인으로 기업규모, 경쟁구조, 생산비의 고저, 수출과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정부정책의 요인 등을 들고 있다. 또한 내부요인으로는 첫째 제품요인으로 제품차별화 정도, 사전·사후 서비스의 필요정도, 제품의 특성 등을 들고 있으며 둘째, 자원 투입 요인으로 기업의 규모와 자원투입의 정도 등을 들고 있다.

아가왈과 라마스와미(Agawal & Ramaswami, 1992)는 기업의 외국 시장 진입 형태 선택에 대한 기업우위(차별화된 산물을 발전시킬 능력, 크기 및 다국적 경험), 지역 우위(시장 잠재력 및 투자 위험), 내부화 우위(계약상 위험)간의 상관관계 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연구 결과는 결정요인의 각 유형의 분리된 효과에 대한 이전 연구에서 발견된 것을 동시에 확장하는 반면, 상관관계의 가설화된 효과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함축하고 있다. 기업이 직접투자를 외국에 시장형성을 원하더라도 그들의 능력은 기업 크기 및 다국적 경험에 의해 종속된다. 게다가 결과는 기업이 높은 잠재 시장에 오직 투자 전략을 사용한다는 일반적인 신념을 지지하는 반면, 몇몇 기업(큰 다국적 기업)은 만일 그들의 전략적 목표가 그렇게 나타난다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잠재적 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기업규모가 크고 다국적 경험이 많은 기업들은 외국시장에 진출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단독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차별적 제품을 개발할 능력을 지닌 기업은 외국시장에 진출하려는 경향은 강하지만 비 투자형태의 수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 우위에 있어서는 시장잠재력이 높을수록 단독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시장에는 진입하기를 주저하는 반면, 수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선행연구

김과 황(W. Chan Kim & Peter Hwang, 1992)의 연구는 다국적 기업의 해외시장 진입 모형 결정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거래 특화요소 등, 그간의 이론적 성립을 뛰어 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다국적 기업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경영활동을 하는데 직면하는 위험과 같은 전략적 관계도 고려하였으며, 진입모형 선택에 영향을 주는 절충형 모델의 요소들 속에 다양한 글로벌 전략적 변수들을 일체화한 후에 전반적인 틀의 타당성 검증과 진입형태의 차별화를 함에 있어 각각의 진입 결정요소의 중요성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는 글로벌 전략적 변수와 다른 진입형태 결정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변량 분산분석(MANOVA :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을 사용하였는데 주 가설은 채택되었고, 선택적 틀은 진입형태를 결정하는데 있어 합리적 방법임을 제시하였다. 로짓 분석에서는 글로벌 전략변수 모두 단독투자와 정(+)의 관계를 나타냈으나 환경적 변수에서는 수요의 불확실성과 경쟁 집중도는 진입형태 선택에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으며, 그 외 국가 위험도, 지역 비 친밀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특유 변수에서는 기업특유 노하우의 가치는 진입모형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은 반면 노하우의 묵시적 성질은 기업 진입모형 선택에 정(+)의 영향을 나타냈다.

이장호는 그의 국제경영전략(2001) 저서에서 오늘날과 같이 경쟁이 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기업의 해외진출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논의 되어왔던 Dunning의 절충이론에서 파악하고 있는 요인 이외에 다국적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필연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범세계 전략변수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즉 어느 한 시장에 대한 글로벌 집중도라고 하는 현지시장의 중요성과, 글로벌 시너지로써의 사업의 중요성을 거론하였다. 또한 Kim & Hwang(1992)도 국경을 넘는 다국적기업의 다국적 경영상황 하에서 기업이 지향하는 글로벌인 전략적 관계를 고려해야 하며, 무형의 다양한 글로벌 전략변수를 진입모형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적 요인에 포함시킨 후에 전반적인 틀의 타당성 검증을 통해 진입결정요소로서의 중요성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글로벌 사업집중도, 범세계적 시너지효과, 글로벌 전략적 동기 등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1. 연구모형의 설계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서 검증된 여러 변수 중에서 '전략적 요인'을 선별하여 이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특히 '전략적 요인'은 최근 세계경제가 글로벌 경쟁체제가 가속화 되어가고 있으며, 그 속에서 다국적기업들의 경쟁 또한 일국에 국한되기 보다는 글로벌인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하에서 한 시장에서의 전략선택이 다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그 어느 요인보다도 기업의 해외진출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전략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장호의 저서인 '국제경영전략(2001)'과 'Kim and Hwang(1992)'의 논문을 바탕으로 '전략적 요인'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산정 및 자료수집은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 중에서 국내에 진출한지 3년 이상 된 500개 기업을 선정하였고, 이중에서 유효설문지 95개를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2. 연구기설

국제 과점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은 경쟁자의 움직임이나 수요의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 시장에서의 상황변화를 상쇄하기 위해서 다른 시장에서 기동성 있게 대응하려는 국제기업은 해외거점에 대한 보다 높은 통제를 원한다. 또한 해외영업에 대한 높은 통제력을 가진 기업은 한 해외거점이 경쟁기업과 싸우고 있을 때 다른 해외거점에서 싸움을 거둘 수 있게 할 수 있다(이장호, 2001). 즉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글로벌로 경쟁적 상호의존성이 존재할 때, 한 시장에서의 다국적기업의 행동양식은 종종 다른 시장에서의 반격으로 나타난다(Watson, 1982; Kim & Mauborgne, 1988). 따라서 현지시장의 중요성이 크면 클수록, 높은 통제력을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 집중도를 높이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산업에서 경쟁하는 기업은 다른 조건들이 같다면 합작투자 보다는 단독투자를 통한 진출 모형을 선택할 것이다.

또한, 완전한 과잉자원의 결합을 통해서 공유되어지고 효율화 되어진 다국적 기업들이 자원을 글로벌전략 차원에서 투입할 때 글로벌 시너지 효과는 상승한다(Willing, 1978). 또한 이들은 기업 이윤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Hamel & Prahalad, 1985; Ghoshad, 1987; Kim · Hwang & Bergers, 1989). 따라서 현지시장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해외사업 자체의 전략적 중요성 또한 해외시장의 진입모형선택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 마케팅, 제조활동 등 핵심적인 활동들이 공유되거나 공동으로 이용되는 사업인 경우, 또 이를 통한 글로벌차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가진 기업의 경우에는 현지 사업전략이 중요할수록 노출을 회피하고자 기업은 강한 통제를 요구하는 위계(hierarchy)를 선택할 것이다.

경쟁이 글로벌 차원에서 일어나는 현 상황 하에서는 기업의 해외진출형태가 반드시 경제적 효율성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다국적기업은 조기정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미래의 해외거점 구축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또는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얻기 위해서 등의 전략적 동기를 고려하여 해외진출형태를 결정한다. 따라서 해외진출의 전략적 동기란 특정한 시장에서가 아니라 기업전체적인 차원에서 '효율 극대화'나 '혁신력 강화'를 목적으로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장호, 2001). 이에 세계 첨단산업의 흐름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기정보체제 구축이나 신산업 진출을 위한 전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강한 통제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1]** 글로벌 차원의 사업집중도가 높을수록 다국적기업은 합작투자 보다는 단독투자를 선호할 것이다.
- [가설 2]** 글로벌 차원의 시너지 극대화 전략을 추구할수록 다국적기업은 합작투자보다는 높은 통제수준의 단독투자를 선호할 것이다.
- [가설 3]** 전략적 동기요인이 높을수록 다국적기업은 합작투자보다는 단독투자를 선호할 것이다.

IV. 실증분석 결과

1. 변수측정 및 기술통계분석

기업이 지향하고 있는 전략적 요인에 대한 항목별 분석은 <표 1>과 같다.

우선 글로벌 사업집중도 요인에서는 해당 산업에 참여하는 '주요 3대 기업의 투자 집중도'가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해당 산업 경쟁자 수의 정도'가 3.17, 국내 시장에 대한 '본사의 마케팅 지원 정도' 2.99, 국내 시장에 대한 '본사의 자본집중도' 2.82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기업이 보통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해당 산업 경쟁회사의 수도 그에 상응하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사의 자본집중도 및 마케팅 지원정도는 보통 정도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자본을 집중시키기보다는 분산하면서 국내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높여나가는 전략을 택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표 1> 기업 지향 전략적 요인 항목별 기술 통계

변수	측정 항목	Mean	Std. Deviation
글로벌 사업집중도	해당산업 경쟁자수	3.17	.96
	주요3대기업의 투자집중도	3.21	.89
	본사의 자본집중도	2.82	.95
	본사의 마케팅지원정도	2.99	.88
글로벌 시너지효과	세계차원의 대량생산체제정도	2.78	.86
	제조기술-본사와의공유정도	3.30	1.02
	마케팅노하우-본사와의공유정도	3.23	.92
	R&D자원-본사와의공유정도	3.28	.94
	유통시스템-본사와의공유정도	2.99	.79
	선진 경영기법-본사와공유정도	3.40	.71

글로벌 전략적동기	시장선점확보목적	3.45	.92
	한국내수시장개척	3.51	.94
	해외 거점확보	3.53	.92

한편 글로벌 시너지 효과 요인에 대해서는 ‘선진경영 기법에 대한 외국 본사와의 공유 정도’가 3.40, ‘제조기술에 있어 외국 본사와의 공유 정도’가 3.30, ‘R&D 자원에 대한 외국 본사와의 공유 정도’가 3.28, ‘마케팅 노하우에 있어 외국 본사와의 공유 정도’ 3.23, ‘국내 생산이 가져오는 글로벌 차원의 대량생산 체제 구축 정도’가 2.7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내 투자를 통한 세계 전체사업의 효율성 제고(시너지 효과)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각 항목이 골고루 평균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차원의 시너지 효과를 이루기 위하여 안정적으로 국내에 진출하고 있는 사회사와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끝으로 전략적 동기 요인에서는 미래 시장 확장을 위한 ‘해외 거점 확보’ 목적이 3.5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 내수시장 개척’이 3.51, 그리고 경쟁기업과의 시장쟁탈에 있어 ‘시장선점 확보 목적’이 3.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해외 모기업의 전략적 동기는 보다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가지고 진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전략적 동기가 모든 항목에서 보통 이상의 높은 수준을 선회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보다 명확히 추정할 수 있다.

2.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측정도구로 Ch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기업지향 전략적 요인에서는 ‘시너지효과’가 .7415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나타냈으며, ‘사업집중도’ .5111, ‘전략적 동기’ .5547로 나타났다.

〈표 2〉 신뢰성 분석

변수	변수명	초기항목수	최종항목수	Chronbach's Alpha
기업지향 전략적 요인	글로벌 사업집중도	4	4	.5111
	글로벌 시너지효과	6	6	.7415
	글로벌 전략적동기	3	3	.5547

3. 상관관계 분석

〈표 3〉은 독립변수간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이다.

이 표를 자세히 보면 ‘차별적 제품개발능력’과 ‘시너지효과’와의 관계에서는 .388**, ‘전략적 동기’는 .364**, ‘지적 재산권’은 .354**, ‘사업집중도’ .289**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별적 제품개발능력’ 요인이 높을수록 글로벌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보다 더 기울이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해외시장 확보나 선점을 위해 전략적 동기를 가지고 진출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은 특허와 같은 지적 재산권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독립변수간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

변수명	사업 집중도	시너지 효과
시너지 효과	.354**	
전략적 동기	.206*	.337**

** 0.01 수준(2-tailed)에서의 유의도를 나타냄.

* 0.05 수준(2-tailed)에서의 유의도를 나타냄.

‘사업집중도’와 ‘시너지효과’와의 상관관계에서는 .354**, ‘전략적 동기’는 .206*의 정(+)적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외의 해당 산업의 경쟁 정도가 높을수록 모기업과 각종 마케팅 기술, 선진 경영 기법, 연구개발 자원 등의 원활한 교류를 통하여 글로벌 차원의 효율성 제고를 기하며, 시너지 효과를 높이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시너지 효과’와 ‘전략적 동기’는 .337**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환경에 진입하여 기업경영을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 로지스틱 회귀분석

본 연구에서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이분형 척도로 측정된 경우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간의 관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치와 확률을 분석하는 통계기법이다. 따라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지 안하는지를 직접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다. 즉, 종속변수 값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분석결과 종속변수 값, 확률이 0.5보다 크면 그 사건이 일어나며, 반대로 0.5보다 작으면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예측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종속변수인 다국적기업의 진출형태(합작투자, 단독투자)에 대하여 각 요인(독립변수)이 어떤 유형의 진출형태를 선호하는가에 대하여 예측하고, 이를 분류해 내는데 관심을 가진다.

<표 4>는 모든 독립변수가 한꺼번에 동시투입 되었음을 나타낸다. 먼저, B의 부호가 ‘+’이면 어떤 케이스의 그 변수 값이 클수록 내부 값이 ‘1’인 집단(본 연구에서는 집단 2인 단독투자)에 분류될 가능성이 커지고, 반면에 ‘-’이면 변수 값이 클수록 내부 값이 ‘0’인 집단(본 연구에서는 집단 1인 합작투자)에 분류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독립변수가 실제로 분류집단 예측력이 있기 위해서는 그 변수의 유의성을 보아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전략적 동기’가 다른 독립변수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유의도가 낮은 다른 독립변수들이 모형에 존재할 때 분류예측력이 낮다고 할 수 있다.

한편, Wald는 $(B / S.E.)^2$ 값으로 각 독립변수의 유의성 검증을 위한 통계량이다. 여기서 상대적으로 전략적 동기가 상대적 유의성이 높음을 나타냈다.

$\text{Exp}(B)$ 의 값은 각 변수가 1만큼 증가하는 경우 내부 값이 ‘0’인 집단(집단1=합작투자)에 속할 확률보다 내부 값이 ‘1’인 집단(집단 2=단독투자)에 속할 확률이 몇 배인가를 나타낸다. 여기서는 전략적 동기 3.571, 시너지효과 1.604순으로 나타났다.

<표 4> 분석에 포함된 변수

변 수		B	S.E.	Wald	df	Sig.	Exp(B)
1 단계	글로벌 사업집중도	-.296	.890	.111	1	.739	.744
	글로벌 시너지효과	.473	.846	.312	1	.577	1.604
	글로벌 전략적동기	1.273	.720	3.129	1	.077	3.571

결과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인 <표 4>를 바탕으로 Sig. .1수준을 기준으로 B값과 Exp(B)값을 참고하여 각각의 가설을 검증하면 다음과 같다.

‘글로벌 사업집중도’의 가설 1은 B값이 -.296이며 Sig. .739, Exp(B)가 .744인 것으로 나타나 ‘글로벌 차원의 사업집중도를 높이려고 할수록 다국적기업은 합작투자보다는 단독투자를 선호할 것이다’라는 가설은 지지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가설은 기각되었다. 즉, 아직까지는 한국 시장에 대한 미래가치를 높게 보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글로벌 시너지효과’의 가설 2는 B값이 .473이며 Sig. .577, Exp(B)가 1.604인 것으로 나타나 ‘글로벌 차원의 시너지 극대화 전략을 추구할수록 다국적기업은 합작투자보다는 단독투자를 선호할 것이다’라는 가설은 지지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는 모기업과 본사와의 제조기술, 마케팅 노하우, 연구개발 자원, 유통시스템, 선진경영기업에 대한 공유정도가 아직까지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전략적 동기’의 가설 3은 B값이 1.273이며 Sig. .077, Exp(B)가 3.571인 것으로 나타나 ‘전략적 동기가 강할수록 다국적기업은 합작투자보다는 단독투자를 선호할 것이다’라는 가설은 지지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는 시장선점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이 단독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표 5> 가설검증 결과에서 보는바와 같이 ‘글로벌 전략적 동기’가 각각의 가설을 지지하며, 단독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가설검증 결과

가설 변수	예상 부호	결과
글로벌 집중도	+	- (기각)
글로벌 시너지효과	+	+ (기각)*
글로벌 전략적동기	+	+ (채택)

주) *부호는 일치하지만 유의수준이 낮아 가설이 기각되었음.

V. 결론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전략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특히 ‘전략적 요인’은 최근 세계경제가 글로벌 경제체제가 가속화 되면서, 그 속에서 다국적기업들의 경쟁 또한 일국에 국한되기 보다는 글로벌인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하에서 한 시장에서의 전략선택이 다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어느 요인보다도 기업의 해외진출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과제는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전략요인이 ‘시장 진입모형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 진입모형(단독, 합작투자)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상황요인)로 ‘기업지향 전략적 요인’을 선정하였으며, 이의 세부항목으로는 ‘시장선점확보 목적’ 등 13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한 통계분석기법은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이다.

결국, 각각의 독립변수들이 다국적기업의 진입모형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보면, 다국적기업의 시장진입모형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에서, 독립변수인 ‘기업지향 전략적요인’의 세부변수를 통하여 설정한 가설 중, ‘글로벌 전략적 동기’가 강할수록 합작투자보다는 단독투자를 선호한다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는 시장선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이 단독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합작투자 또는 단독투자의 형태로 진입한 다국적기업의 독립변수에서 제시한 다양한 요인 간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밝혀내는 데 있어 통계량이 부족한 한계점을 갖는다.

이는 응답자가 설문내용을 이해하는데 있어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으며, 보다 많은 정확한 자료들을 수집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운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본사 모기업의 상황 등에 있어서는 많은 응답자가 답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포괄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진입모형 선택에 따른 요인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있어 한계점을 갖는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1) 권영철, “국제합작제휴의 파트너십 결정요인과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경영저널, 2001.
 - 2) 김경 외 1, “일본기업의 대한국시장 진입모형의 선택 결정요인”, 국제경영연구, 2001.
 - 3) 김경·서영길, “일본기업의 대한국시장 진입모형의 선택 결정요인”, 국제경영연구, 2001.
-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발전단계와 성장유형에 관한 연구”, 국제경영연구, 2001.
- 4) 김철, 다국적 기업론, 법문사, 1999.
 - 5) 김철, 해외직접투자론, 두남, 1998.
 - 6) 대한상공회의소, 신국제투자규범 현황과 대응전략, 1999.
- 외국인직접투자 패턴 변화와 유치촉진 방안, 2000.
- 7) 박영렬 외2. “일본 제조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소유지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국제경영연구, 2001.
 - 8) 박용규외 2, “외국인 직업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삼성경제연구소, 1999.
 - 9) 박태석, “한국기업의 대중국 직업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계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 10) 이용석 외1, “국내 다국적기업의 기술도입에 관한 연구”, 국제경영연구, 1999.
 - 11) 이장호, “해외자회사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영저널, 2000.
- 국제경영전략, 박영사, 2001.
- 12) 허영도,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진입전략 선택과 성과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1996.

[1] 외국문헌

- 1) Agarwal Sanjeev and Ramaswami, Seidhar N. (1992). “Choice of Foreign Market Entry Mode : Impact of Ownership Location and Internalization Factor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 2) Agawal & Ramaswami(1992). "The choice of foreign market entry mod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 3) Beamish, Woodcock & Makino(1994). "Ownership-based Entry Mode strategies and International Performanc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 4) Clegg, Jeremy(1987). *Multinational Enterprise and World Competition*, Macmillan press.
- 5) Harzing, Anne-Wil.(2002) "Acquisitions Vs Greenfield Investment : International Strategy and Management of Entry Mod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 6) Kim, W. Chan & Hwang Peter(1992). "Global Strategy & Multinationals Entry Mode Choic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 7) Makino Shige and Neupert, Kent E.(2000). "National Culture, Transaction Costs and the Choice Between Joint Venture and Wholly Owned Subsidiary",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 8) Moran, Theodore H.(1998).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Developmen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9) Tan Benjamin and Vertinsky Ilan(1996). "Foreign Direct Investment by Japanese Electronics Firm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Modelling the timing of Entry",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 10) Woodcock, C. Patrick, Beamish, Paul W. and Makino, Shige(1994). "Ownership-based Entry Mode Strategies and International Performanc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